

노르웨이 수출농식품 관련 정책

노르웨이는 비EU국가로 EU법의 통치하에 있지 않지만 EEA(European Economic Area)의 일원으로 농식품 분야에서 정책, 교역 등 상당부분을 공유하고 있다. 노르웨이는 척박한 자연환경으로 국토의 3%만이 농업을 할 수 있는 토지이고, 국가를 이끄는 경제 동력은 서비스, 석유 및 가스, 건설, 어업이 주요 산업이다. 노르웨이의 식품 수출 촉진 전략은 수산물에 선택과 집중되어 있다. 해외 수산물 수출 촉진 기관 NCS를 중심으로 각국에서 공격적인 마케팅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.

□ 노르웨이 수산물 위원회 (NSC, Norwegian Seafood Council)¹

- o 노르웨이산 수산물 해외 시장개척 업무는 NSC에서 담당
- o NSC는 5가지의 중점 수출 품목을 두고 각각의 고문단 운영
- o NSC는 산업수산통상부(Ministry of Trade, Industry and Fisheries) 소속의 공기업으로, 산업수산통상에 수출자문역할도 하고 있으며, 수산물 업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됨
- o 노르웨이 트롬쇠에 본사를 두고, 스웨덴, 영국, 독일, 프랑스, 스페인, 포르투갈, 이탈리아, 브라질, 일본, 싱가포르, 중국, 미국에 지사를 두고 있음
- o 주요 역할은 마케팅, 시장조사 및 통계, 시장 위협요인 분석 및 대비(리스크 매니지먼트) 등임

□ 노르웨이 수산물 수출현황

- o 전세계 150여개국으로 수출 중
- o 인구는 500만명으로 우리나라의 10분의 1이지만, 수산물 수출액은 2014년 기준 7백4십억 NOK(원화 약10조원)으로 우리나라 수산물 2014년 수출액인 20억달러(2조원)의 5배 수준임
- o 노르웨이의 수산물 수출액은 지난 10년간 2배 성장

□ NSC의 주요 활동사례

- o 수산물 수출업체 정보 공개
- o 전세계 수산물 박람회 지원
- o 노르웨이산 수산물 홍보자료(광고물, 이미지, 동영상, 레시피 등) 무료 제공
- o 각 국가의 언어로 홍보 홈페이지 운영
- o 매년 25개국 현지 파트너와 공동마케팅 운영, 약 500개 프로젝트 진행
- o 3년간 마케팅 플랜 제공
- o 정보 조사 제공

1 <http://en.seafood.no/About-us/Norwegian-Seafood-Council>

- o 판촉지원(Company initiativ): 각종 이벤트(쿠킹클래스 등), 광고 집행 및 홍보비 50% 까지도 지원
- o 홍보자료 제작 지원 (회사로고, 회사소개, NSC컨택트 인포포함 등)
- o 광고 홍보 대행
- o 공통 라벨 (Norge)운영



《 노르웨이산 수산물 공통 트레이드마크 “NORGE - Seafood from Norway” 노르웨이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에 사용, 국제적으로 사용 가능.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음² 》

- 노르웨이 수산물 위원회의 한국 내 활동 사례
 - 2011 년 노르웨이산 연어 요리 경연대회
 - 2012 년 노르웨이산 수산물 어린이 쿠킹클래스 실시
 - 2014년 노르게 로고 알리기 캠페인
 - 2014 노르웨이 수산물 사용 맛집 탐험 블로거 체험단 실시
 - 2014 노르웨이 고등어 초중고등학교 급식 체험 프로그램
 - 2015 노르웨이산 고등어 홍보행사 및 미디어 홍보
 - 2016년 노르웨이산 고등어 수입 73% 증대, 연어 58% 증대